

핵물질 불법거래의 국제 동향에 대한 고찰
The consideration on the international trend of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김재광, 이종욱, 최영명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약

1991년 구소련의 붕괴 및 동구권의 몰락에 따라 핵물질의 불법유출을 비롯한 불법거래가 성행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국에 대해 가입을 요청하였다. 또한, 미국 9.11테러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핵물질의 불법거래가 궁극적으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IAEA는 이러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을 중심으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국제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핵물질 불법거래 사건들에 대한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대처방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

원자력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 KINS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Safety Culture in Regulatory Expert Organization
- Analysis result of survey for KINS employees -

최광식, 최영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요약

지금까지 원자력사업자의 안전문화에 대하여 이루어진 활발한 논의에 비하여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원자력 안전문화 관련 IAEA, OECD/NEA 등 국제동향 및 국내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학술 논문들을 분석,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들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설문을 구성,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모델 정립, 측정방법 개발 및 안전문화 향상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